



농협 순창군지부, 고향사랑기부금 1790만원 전달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이병희 지부장과 직원들은 지난 13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79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으며, 기탁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이병희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병희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성과 답례품으로 더 많은 농축산물 선정을 통한 우수한 지역 농축산물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업·농촌 발전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순창군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겠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부를 이어준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주소지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지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전국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향사랑' 앱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도봉동 등, 이불 세탁 서비스 협약 체결

남원시 도봉동은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 남원지구협의회 가운누리봉사회(대표 김희민)과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대형 이불 등 세탁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들의 이불 세탁(수거·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한 풀 서비스 사업으로, 올해 3월, 6월, 9월, 11월 총 4회 20여 가구의 세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 업무협약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실태 점검과 안부확인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가운누리 봉사회 대표는 "어르신들과 취약 가구에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해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년자 동장은 대한적십자사 가운누리 봉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에 한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건물붕괴 대비 도시탐색 구조훈련 실시

순창소방서는 지난 13일부터 원거리에서 있는 소방지역대(성서, 복흥, 구림, 동계)와 함께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에서 건물 붕괴사고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도시탐색 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화재, 지진과 테러 등 대형사고 현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건물진해 및 차량에 매몰된 각종 현장에서 전문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 먼저 도착한 소방지역대 소방대원이 차량에서 유압장비 등 장비를 활용하여 건물진해 및 차량에 매몰되거나 부상을 입은 요구조자에 대한 신속한 인명구조 등 소방대원의 전문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하였다.

훈련 내용으로는 △붕괴 구조물 안정화 △중량물 작업을 장비 설치 △재난 상황별 적정 장비 운용 및 숙달 △상황별 안전사고 사례 및 안전사고 주의사항 교육 등이다.

윤종선 현장대응단장은 "교통사고 등 차량에 매몰된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소방대원들의 숙달된 전문능력이 필요하다"며 "소방대원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인명구조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이세종 열사 추모사업회 만든다

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 공식 인정... 전북대 총동창회, 범도민 추진위 구성 제안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병선)가 이세종 열사 추모사업회 조직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학생이던 이세종 열사는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로 국가로부터 지난해 말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1980년 5월 18일 새벽, 계엄군의 살인적인 폭력으로 인해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 옥상에서 내던져 희생당한 지 44년 만이다.

이를 계기로 전북대 총동창회는 5.18민주화운동 첫 희생자 이세종 열사를 기리는 가정 5.18민주화운동 첫 희생자 이세종 열사 추모사업회를 조직, 4719명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기념행사를 범도민 차원에서 개최하는 2024년 전북대민주주의행동 4월에서 6월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최병선 총동창회장은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북을 비롯한 전국적인 항쟁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며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재정의하게 된 역사



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진위원회에는 전북대학교총동창회를 비롯해 전북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 5월 동지회, 전라고등학교총동창회, 전북대학교교민동문회, 전북대학교총학생회,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협의회 등이 함께 한다. /정은성 기자

무주에 권정순재단 3천만원 · 현대광고 1백만원 장학금 기탁

무주군은 지난 13일 재단법인 권정순재단(이사장 서호진)에서 무주군교육발전재단장학금에 장학금 3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무주나눔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날 기탁식에는 황인홍 이사장(무주군수)을 비롯한 권정순재단 관계자 등이 자리해 의미를 더했다.

서호진 이사장은 "어머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소외된 이웃과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무주군 학생들의 꿈을 뒷받침하는 데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황인홍 이사장은 "배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실현에 앞장서 주시는 권정순재단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재단에서 기부해주신 장학금을 토대로 다양한 장학사업 발굴과 추진에 정성을 기울여 이 자리가 큰 나눔, 작은 기부를 부르는 메아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재)권정순재단은 지난 2008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인재육성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 복지향상 등을 위한 지원활동에 솔선수범하며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해 나가고 있다.



한편 14일에는 무주읍에 소재한 현대광고에서도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김영진 사장은 "지역인재를 키우는 일은 무주발전에 필요한 동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사랑으로 업을 꾸려 나가는 만큼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되갚고 싶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대강면, '하하호호 마실탐방대' 운영

남원시 대강면(면장 김종표)은 1일 1가구 행정사책으로 "하하호호 마실탐방대"를 운영한다.

마실탐방대는 취약계층 등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면장과 맞춤형복지팀 및 지역 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이 가가호호 방문, 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맞춤형서비스를 안내하는 대강면민의 특수시책이다.

지난해 대강면은 1일 1가구 방문을 통해 총 557가구를 방문 △안부확인 △건강상담 △주거환경개선(보일러, 가스 점검, 안전바 설치) △맞춤서비스 지원(노인 맞춤형돌봄 연계, 반찬 배달) △생활불편 상담 △후원물품 전달 등의 복지 서비스를 추진했다.

또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복지사각지대 의심 가구로 조회되는 대상자를 선정해 방문해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공적 급여 연계와 건강상담을 통해 △약 복용 지도 △혈압 및 혈당 체크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수 공보시책 5건을 포함 대강면 자체 발굴



시책인 △헌 신분증을 새 신분증으로 △안부 묻고, 반찬 나누고 △문화누리 이용 편의지원 △대강 가이버 △우리 마을 학교 화합품 종합선물 세트와 같은 시책을 추진, 생활 전반에 걸친 전방위적 주민케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도봉동, 카카오톡 채널 개설 운영

남원시 도봉동(동장 소선자)은 지난 2월 말부터 시청 및 동청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 시 및 동 소식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도봉동 카카오톡 채널의 SNS를 활용한 '도봉동 특색'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운영은 통장회나 홈페이지, 마을 홍보게시판 등은 찾아 가는 간담회 등 기존 전달 방식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홍보에 대한 직접적인 강화를 위하여 나이 구분없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효과적인 홍보 수단 발굴로 직접적인 정보망 구축을 위해 운영을 시작하였다.

특색의 내용을 살펴보면 SNS를 통해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홍보 △남원시 시청 주요한 및 정책 공유 △춘향제 공연 등 문화·예술·체육 소식 △도봉동 시책사업, 통장회의, 자치사랑방 자료 등 △로라리 복지정보 알림 △기타 각종 정보 제공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비전대-새만금개발공사, 콘텐츠 협업프로젝트 진행

전주비전대학교 방송영상디자인과(학과장 김지애)와 새만금개발공사는 콘텐츠 협업프로젝트 '새만금 버디버디'를 공동 진행한다. 14일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창조관 실습실에서 새만금개발공사 홍보 IT처 김경일 처장(주최)과 김태경 이사, 방송영상디자인과 김지애 학과장 등 7명의 관계자와 방송영상디자인과 2학년 학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

김지애 학과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의 실무 수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전공실력을 실려 새만금의 매력과 활력을 짚은 시선으로 해석한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새만금 홍보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이 기획에서부터 제작까지 전단계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좋은 결과물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수 선정작품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제작된 콘텐츠는 하반기에 새만금개발공사 SNS를 통해 선보인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LIFe 2.0 광역지자체 연계형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지난 13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2.0) 광역지자체 연계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LIFe2.0사업 참여 대학 직무연수 및 유형별 협의회 통합 워크숍에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광역지자체 연계형의 성공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동신대, 국립목포대, 상지대, 서원대, 호원대 등 총 10개 대학과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에서 각 대학은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을 협력 운영하고, 지역사회 평생교육진흥 발전 및 평생교육 연구, 학생 교류, 현장학습 지원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 성인 학습자 친화형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학점 교류 공유를 통한 각 기관의 발전에 함께할 예정이다.

미래융합대학 한동승 학장은 "이번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2.0) 광역지자체 연계형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각 대학이 협력하고 고등평생교육 체제에 대해 연구하며, 고등평생교육체제 확산과 평생교육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김제 청하면 농민회, 풍년농사 기원 영농발대식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청하면농민회(회장 이인중)가 지난 13일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2024년 청하면 농민회 영농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인중 청하 농민회장을 비롯한 김제시의회 의원, 각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내빈 덕담에 이어 투쟁결의문 낭독, 고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인중 농민회장은 "농업인들의 건강과 무사 안녕을 기원, 자연재해 없이 무탈하게 한 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한다"며 힘차게 한 해의 영농 시작을 알렸다.

양유미 청하농민회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잦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올 한 해 큰 자연재해 없이 풍년농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김제 곰드림, 학교 밖 청소년에 '곰드림 밥상' 전달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곰드림)는 학교 밖 청소년의 충분한 영양섭취 및 결식예방을 위해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40명에게 13일부터 15일까지 '곰드림 밥상' 1차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3차로 나누어 진행되는 '곰드림 밥상'은 청소년이 선호하는 메뉴에 맞춰 불고기, 닭갈비, 탕, 짜개류 등 손쉽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위주로 구성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은 "학교에서의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충분한 영양 공급을 위해 다양한 급식 서비스를 지원해 청소년들의 결식이 생기지 않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14일, 남원농협 본점 주차장에서 범농협 임직원들이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농협 남원시지부, 남원 관내 농축협 7개소 임직원 8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헌혈 참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혈액수급에 도움을 주고 이웃과 생명을 나누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오영석 지부장은 소중한 생명을 위해 헌혈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책임경영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업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